

두 대의 '피아노'

문현옥·임리라 리사이틀 2일 금호아트홀



문현옥



임리라

피아니스트 문현옥·임리라 듀오 리사이틀이 2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전남대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문씨는 연세대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떠나

탬플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PIANO&US'회원으로도 활동중이다.

연세대와 노스텍사스 주립대에서 수학한 임씨는 지난 7월 낙소스와 피아노 음반 작업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다.

레퍼토리는 라벨의 '볼레로', 피아의 '삼각모자',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스트라빈스키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페트르슈카' 등이다.

특히 이번 연주회에서는 전남대 작곡과 교수로 재직중인 정현수씨의 '두 대의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두드림 II'를 들려준다. 프랑스 말레종 국립국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수석졸업하고 현재 전남대 등에 출강중인 타악기 주자 신범수씨가 협연한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 문의 010-4301-192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공정무역 커피·기부...아름다운 손 모여 '나눔꽃'



헌책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시민들이 무료로 기증한 책들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착한 책방'이다.

문화가 흐르는 공간

12 헌 책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장소·인테리어·책·예술품 등 기부로 꾸민 책카페

자원봉사들이 운영, 수익금은 풀뿌리 단체 돕기

'사람 도서관' 등 프로그램 다채...모임공간 무료 제공

아름다운 재단이 운영하는 헌책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광주시 북구 용봉동)는 많은 이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키워냈다.

공간을 무료로 내어준 이도 있었고, 인테리어를 무료로 해준 이도 있었다. 예술가들은 작은 그림과 조각으로 공간을 꾸였고, 무엇보다 많은 시민들이 무료로 책을 기증했다. 책 정리, 커피 판매 등 매장 운영 역시 자원봉사자 30명(1주일에 4시간)이 함께 꾸러가고 있다.

책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커다란 나무에 걸린 후원자(단체)들의 이름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책방과 카페가 어우러진 공간이다. 시민들에게서 기증 받은 책 3만여권이 책장에 뿔뿔이 꽂혀 있고 저렴한 가격에 공정 무역 커피 등도 판매한다. 수익금은 지역 어려운 이웃과 풀뿌리 단체를 돕는 데 사용하는 '착한 책방'이다. 또 플래카드, 소파 가죽 등 재활용품을 활용한 브랜드 '에코파티메아리'와 다양한 공정무역상품을 판매한다.

책방에서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람책 도서관'(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대표 행사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30대 젊은 예술기획자 강민형씨, 광주극장 김형수이사 등이 다녀갔다.

'그림책 읽어주는 그림 책방'(마지막주 토요일 오후 5시)은 아이들이 그림책에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색동어머니 동화구연 연구회원들이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오는 9월 18일부터 10주 과정(매주 목요일 오후 4시)으로 진행되는 '오감발달 책놀이 프로그램'은 그림책으

로 오감을 자극시키며 책과 친해지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역시 9월 16일부터 10주 과정으로 열리는 '독서 발달 심리 치료 프로그램'은 성인반(화요일 오전 10시)과 아이반(화요일 오후 3시)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엄마와 아이가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다.

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가 진행했던 '별책부록영화제'에 이어 가을부터는 여성단체에서 페미니즘 관련 영화들을 상영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문을 연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지난 4월 분갈이를 했다. 같은 건물 4층으로 이전하면서 공간에 변화를 줬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킷마루는 그대로 살리고 사무실 공간을 축소해 모임방을 따로 만들었다.

최근 중고 서적이 인기를 모으면서 일반도서 기증량이 대폭 줄었고, 매출 역시 감소하고 있다. 운영진은 고민만 하기보다는 발상을 전환했다. 수익에 연연하기보다는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지역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의미있다는 판단을 했다. 모임방은 운영 시간 내 선착순 신청으로 언제나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하다 보니 엄마들과 함께하는 행사들이 자연스럽게 기획된다. '함께 크는 나무' 소속 부모와 아이들이 책방에서 '나도 경제사'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매니저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아 만든 공간이니만큼 시민들이 아낌없이 쓰셨으면 한다"며 "방문할 때 안 읽는 책 몇권 가지고 오시면 된다"고 말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오전 10시30분~오후 7시)까지 문을 연다. 문의 062-514-8975. blog.naver.com/csnsl

/글·사진=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슴 적시는 '비'

전통과 형상화, 3일까지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김병균 작 '관조-금강산 계곡'

전통과 형상화(회화 장경이)가 광주시립 초대로 오는 9월 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25번째 정기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 주제는 때를 알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내리는 반가운 비를 의미하는 '시우(時雨)'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시우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번 전시에는 김일호·김민·김병균·김재민·김진희·노진숙·류현자·명현철·박명숙·원종선·윤남웅·윤성필·윤세영·윤영필·이구용·이두환·이선희·이승대·이창훈·임종두·장경이·장용림·정경아·정재이·조문현·최진우·허진 등이 참여한다.

전통과 형상화는 전남대 예술대학 한국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1990년 서울 전시를 시작으로 광주와 대만, 일본 등에서 정기전을 선보이고 있다. 문의 062-222-3757. /김경원기자 kki@kwangju.co.kr



후원자(단체)들의 이름이 달린 기부 나무가 인상적이다.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기본 마음 가득 담아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맞이하세요!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위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0년은 가는데!!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